

보도시점 2026. 10.14(수) 10:30 배포시점 2026. 10. 13.(화)
< 10.14(수) 석간 >

산업통상부·식품의약품안전처,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해 협력한다

- 「바이오 산업 AI 전환·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」 체결... 기술개발,
바이오소부장 상용화, 규제서비스, 수출, 핵심 보건의료품목 공급망
안정화 등 전주기 협력 강화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‘산업부’)와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, 이하 ‘식약처’)는 10.14(수) 강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「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했다.

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바이오 산업은 개발부터 제조, 품질 관리,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. 우리 기업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도약과 이에 맞는 규제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.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이러한 공감대 하에 추진되었다.

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의약품·의료기기 규제를 책임지는 식약처가 바이오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. 양 기관은 ▲바이오 분야 AI 융합 기술의 개발·실증 및 제품화, ▲AI 신기술 검증기준·가이드라인 마련, ▲국산 바이오 소재·부품·장비의 개발과 상용화, ▲해외 규제정보 공유를 통한 수출 지원, ▲핵심 보건의료품목 등 공급망 안정화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
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“바이오·의료기기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성능 입증, 인허가, 판로확보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, 산업부와 식약처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”며, “바이오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, 기술 개발부터 수출까지 실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오유경 식약처장은 “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개발

초기 단계부터 규제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”며, “식약처는 그간 쌓아 온 규제외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앞으로 산업부와 식약처는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M.AX 바이오, 바이오소부장 등 분야 공동 R&D 과제를 비롯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,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.

담당부서 < 총괄 >	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	책임자	과 장	최광준	(044-203-4290)
		담당자	서기관	노정림	(044-203-4295)
	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	책임자	과 장	신인수	(043-719-1351)
		담당자	사무관	장석진	(043-719-1362)

